



제13회 광양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실내 전천후구장서 16개 팀 200여 명 참가

우승 옥곡, 준우승 성호, 공동 3위 우산·용지

제13회 광양시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3일 실내전천후구장에서 선수 입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한 마당 족제가 열렸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대회사에서 “게이트볼은 경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운동이다.”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광양건설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미 계획된 구장 외 여건이 마련된다면 어느 지역에 사더라도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게이트볼협회 김종필(회장)은 “그동안 광양시가 게이트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에 주력하고 개인의 건강과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16개 팀이 예선과 본선을 거쳐 치열한 격돌 끝에 옥곡 팀이 성호 팀을 꺾고 영광의 우승을 차지해 상장과 부상 등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우승의 공로를 세운 옥곡 팀 출전



우승을 차지한 옥곡 팀 유선희(주장) 김동춘, 박주화, 한종호, 최동수 선수가 김종필 광양시게이트볼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수로는 유선희(주장) 김동춘, 박주화, 한종호, 최동수 선수 등 5명 이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덕연동, 클린-홈 서비스 제공

(주)정원개발과 협약 체결 취약계층 세대에 주거적 실시

덕연동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청소업체 (주)정원개발과 최근 둥 행정복지센터에서 클린-홈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서비스를 실시했다.

덕연동 클린-홈 서비스는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건강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대에 대형가전제품 청소, 침대 매트리스 소독, 벽면 꼼꼼이 세거, 빨래 등 주거환경을 개선·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클린-홈 서비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청소 서비스가 아니라 주

기적으로 세대를 방문해 청소 방법을 알려주고 주변을 스스로 깨끗이 정리하도록 의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클린-홈 서비스에 참여한 덕연동 미중동보장 협의체와 바르게살기운동 덕연동 위원회는 “여름철을 맞아 악취 ZERO! 클린-홈 서비스로 쾌적하

고 청정한 도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이웃이 이웃을 돋는 주민 주도의 맞춤형 복지사업 취지와 부합한다.

또한 청소업체 (주) 정원개발 대표 차진성씨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의 없을까 고민하다 차에 덕연동 및 충청형복지팀의 추천으로 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적극 동참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모범 주민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신철 동장은 “공적제도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력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복지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개발과 연계에 박차를 가하여 따뜻한 동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농기계임대소 농번기 서비스 강화

모든 임대농기계로 배송 확대 · 현장서비스 지원 · 휴일근무

화순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능주면 본소와 동부면 분소 2개소에 트랙터, 경운기 등 66종, 371대를 보유하여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에만 실시했던 배송서비스를 전년 하반기부터 경운기, 관리기 등 모든 임대농기계로 확대 하였으며, 농기계 수리요원의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정화와 기술축적 활용으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장이 짖은 임대농기계 정비·점검 강화와 현장수리를 지원하여 농업인이 제때에 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기계와 노후화된 농기계 교체를 위하여 동력예취기, 두드상형기 등 6종, 12대를 추가로 확보한다.

한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함께,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조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현재 굴삭기, 트랙터 등 4회, 121명의 농업인이 교육을 받았고, 7월부터는 정비기술 등 5회,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기계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평일 및 공휴일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hwasun.go.kr>)나 전화(061-379-5465) 예약을 통해 농기계를 쉽게 대여를 받을 수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평가에서 순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재정 인센티브 3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예산 집행률 및 사업 발굴 실적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 국정과제인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일자리사업 집행 대상 246억원 중에서 1분기에 47%에 해당하는 115억원을 집행하는 등 행정안전부 목표인 20%보다 18%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일자리 사업 발굴 실적도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번 성과는 연초부터 전영제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신속집행주진단’의 운영으로 재정 집행 사항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사업 추진상태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시 관계자는 “2분기에는 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시행

지속적 항만시설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항만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특히 공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RQ)를 거쳐 전문성과 업무경험이 많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해 이번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며 균열, 열화 등 상태조사, 수중 조사 및 구조해석 등을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보수·보강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공사는 이 기간 동안 1, 2종 시설물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기

타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물 및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공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RQ)를 거쳐 전문성과 업무경험이 많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해 이번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며 균열, 열화 등 상태조사, 수중 조사 및 구조해석 등을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보수·보강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양시, 열대 과일의 여왕 ‘애플망고’ 본격 출하

2013년부터 시험 재배…수입산에 비해 맛과 향 뛰어나



광양시는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자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애플망고가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작목으로 육성하고자 2013년부터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을 통해 애플망고를 식재해 왔었다.

그동안 시는 애플망고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 시범농가에 자동화하우스 제습난방기 설치 등 시설을 지원해 왔으며, 5년 만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됐다.

봉강면 이동배 농가에서 생산된 애플망고는 잘 익은 상태로 수확돼 소비자가 받는 즉시 먹을 수 있다.

특히, 일조량이 풍부해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 타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산 망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과 향을 자랑한다.

박종수 미래농업팀장은 “아열대과수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과수로 재배하기 어려운 작목이긴 하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인

민족 지속적으로 발달해 나가겠다.”며 “애플망고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과 유통 판매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애플망고, 천혜향, 한라봉, 레드향, 백향과 등 아열대과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16농가에서 3.3ha에 재배되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애플망고, 페션프루트 등 아열대과수를 틈새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을 1,000㎡ 규모의 열대과수관을 설치하고, 애플망고 등 12개 품목을 시험재배 해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